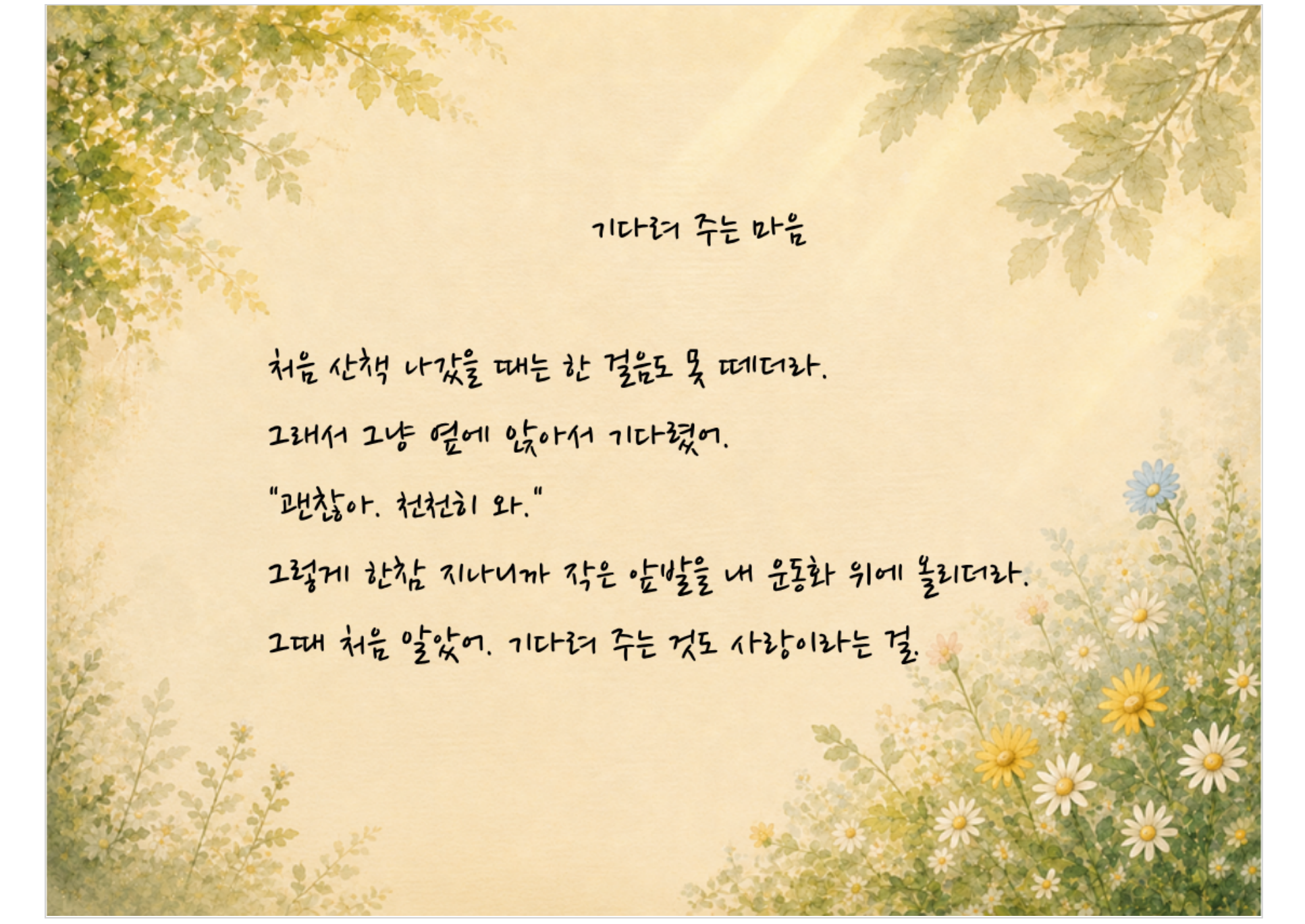






기다려 주는 마음

처음 산책 나갔을 때는 한 걸음도 못 떼더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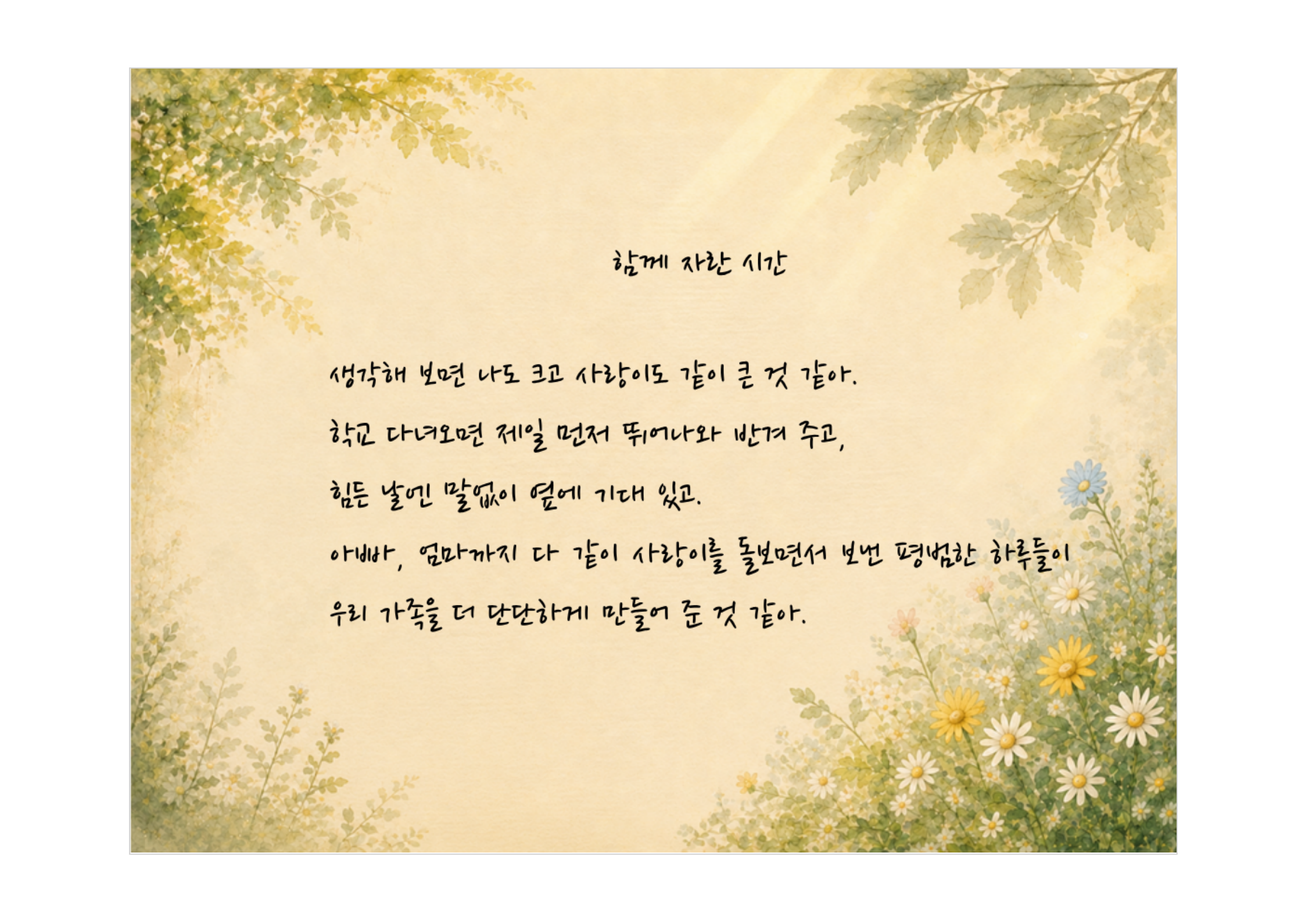
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.

"괜찮아. 천천히 와."

그렇게 한참 지나니까 작은 앞발을 내 운동화 위에 올리더라.

그때 처음 알았어. 기다려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.





함께 자란 시간

생각해 보면 나도 크고 사랑이도 같이 큰 것 같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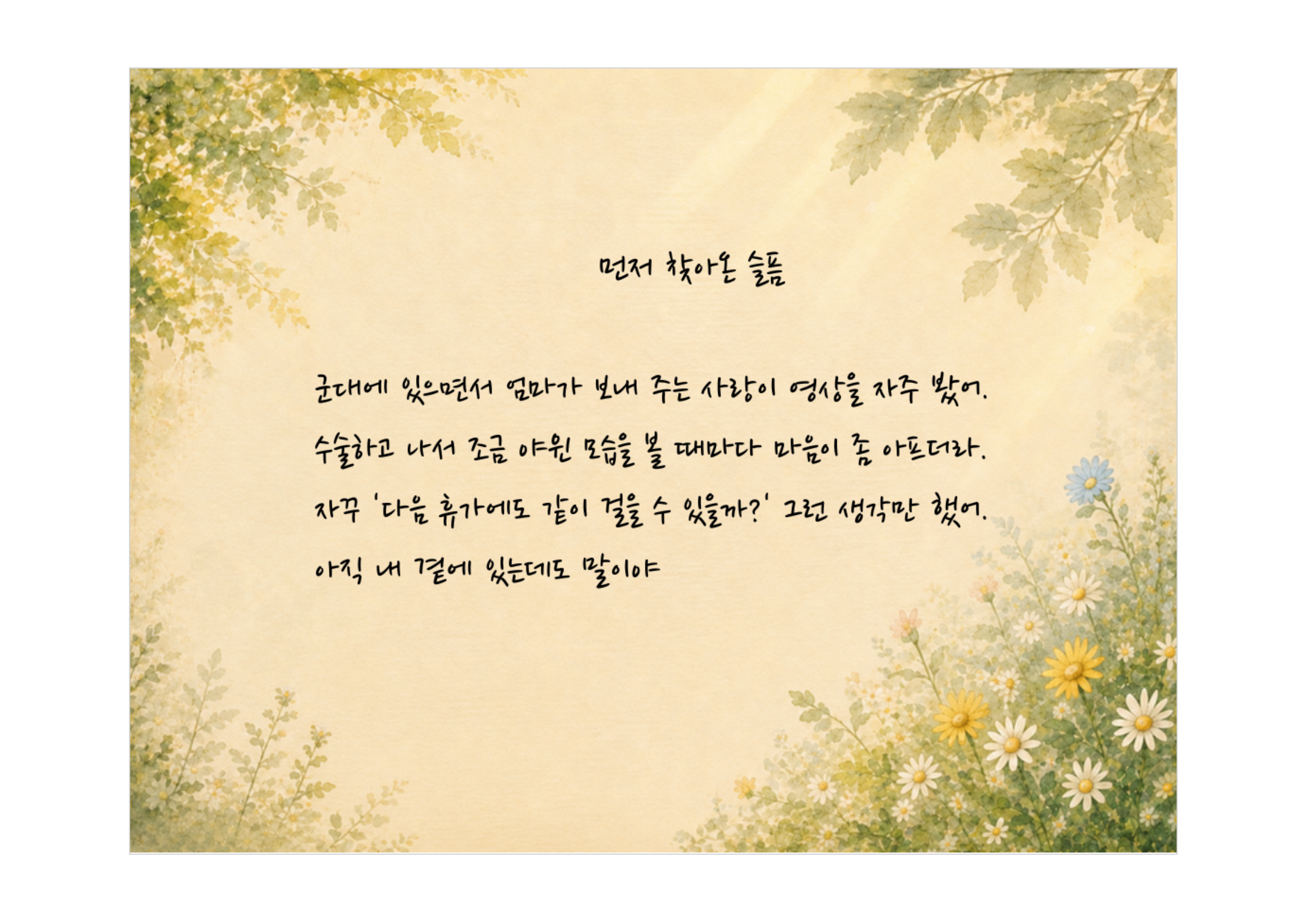
학교 다녀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 반겨 주고,

힘든 날엔 말없이 옆에 기대 있고.

아빠, 엄마까지 다 같이 사랑이를 돌보면서 보낸 평범한 하루들이

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.





먼저 찾아온 슬픔

군대에 있으면서 엄마가 보내 주는 사랑이 영상을 자주 봤어.
수술하고 나서 조금 야윈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더라.
자꾸 '다음 휴가에도 같이 걸을 수 있을까?' 그런 생각만 했어.
아직 내 곁에 있는데도 말이야